

교환학생 보고서

전기정보공학부 14학번 서자민

기본 정보

파견 학교 : ETH Zurich

기간 : 2017.8.28~2018.2.22

학업

ETH는 공학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수업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, 체계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하나의 강의에도 여러 분의 교수님들께서 번갈아가면서 본인들의 전문 분야에 대해 수업을 해주셔서 더 깊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. 저는 취리히가 Neuroscience 분야에서 유명하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듣고, 'Neuromorphic Engineering I'이라는 수업을 신청해서 수강하였습니다. 이 강의가 로드가 많기로 악명 높기도 했고, 아래에도 언급할 Semester Project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한 개의 수업만 집중적으로 배워가자는 생각이었습니다. 총 6 ECT를 차지하는 강의이고, 수업은 현재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하고 계시는 세 분의 교수님들께서 맡아주셨습니다. 종종 수업 보충자료로 그 교수님들이 직접 집필하신 논문들을 업로드해주셔서 흥미로웠습니다.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실험시간이 있었는데, 수업시간에 배운 Neuromorphic chip들을 직접 다루어 보았습니다. 매 주 실험보고서를 3장씩 써가야 했고, 주제에 따라 가끔은 실험실에 5시간이나 남아있어야 했기 때문에 힘들기도 했습니다. 시험은 Oral Exam이었고, 교수님들의 질문들이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던 방식과 포인트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당황하고, 잘 하지는 못했지만 성적은 잘 주셨던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, 평소 관심에 있었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관련 강의를 거의 없는 'Neuromorphic Engineering'에 대해 공부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

연구

수업 이외에 Semester Project에도 참여하였습니다. 처음에 프로젝트를 할 연구실을 알아보러 몇분의 교수님들과 미팅을 했는데, 제가 교환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흔쾌히 시간을 내주시어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. 결과적으로는, Digital Circuit Design 프로젝트를 약 4달 간 진행하였습니다. 9월부터 12월까지는 Supervisor의 도움을 받으며 연구를 했고, 1월에는 결과 보고서와 발표를 하였습니다. 처음으로 해보는 석사 프로젝트인데다가, 모든 것을 영어로 진행해야 했기 때

문에 예상보다 쉽지 않고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. 하지만, 자발적으로 연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것, 연구 과정에 대해 사수와 영어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, 실제 논문형식으로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, 랩미팅 시 영어로 발표하는 것 등 많은 일들을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. 앞으로 공학을 연구하면서 하게 될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.

생활

기숙사는 교환학생 / International 학생들이 모여있는 Caesar-Ritz strasse의 기숙사로 배정이 되었습니다. 15인 플랫이었으며 화장실은 5개, 큰 부엌 1개가 포함되어있었습니다. 월세는 방이 넓은 편인데다가 발코니까지 있어서 대략 70만원 정도였습니다. 수업을 주로 듣는 main campus쪽과는 40분가량 걸렸는데, Honggerberg campus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등교가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. 학교 체육관 이용이 무료였고 다양한 강좌가 열려서, 필라테스/요가/콘디/재즈댄스 등 여러 가지 운동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. 스위스의 물가가 비쌌기 때문에, 필요한 것들은 종종 독일 국경근처 지역으로 가서 사왔습니다.

교환 학생을 가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외국에서 6개월을 살아봄으로써 정말 많은 것을 얻고, 배우고,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. 이 기회를 제공해주신 공과대학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